

# 개 회 사

회 장 조 규 상

---

---

오늘 평소에 우리가 존경하는 정동철 노동부차관님을 모시고 대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1985년도 정기총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60년대초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후 오늘날까지의 20여년은 우리나라가 역사에 유례없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한 기간으로서 그간 산업보건분야의 동지들은 학문적으로나 산업장에 있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 왔으나 경제위주 정책에 뒤밀려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제 5 공화국 출범후 복지사회개발의 정부정책은 근로자를 위하여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게 하였고 민간주도로써 본협회로 하여금 강력히 추진하여 나가도록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로자를 위한 보건사업은 자유방임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되어도 안되고 수입사업이 되어도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보건은 그간 산업보건의 모체였던 본협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어떠한 조직과 체제의 산업보건사업이 가장 이상적인가를 잘 연구하여 지역사회의 집단관리체제하에 사업장의 보건관리자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임무와 역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도록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새로이 제정된 진폐법이 시행되는 해로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인 본직업병대책을 위하여 우리모두의 중지를 모아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직도 실태가 구명되지 못하고 있는 특정화학물로 인한 공업중독도 연구개발되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산업보건사업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 국가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보건사업입니다. 모든 회원들께서는 과거 이분야를 위하여 노력하여 온 힘을 가일층 집약하여 올해는 우리나라 산업보건사업이 굳건히 뿌리박는 해가 되도록 다함께 힘을 합할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985년 2월 28일